

# 北韓政治體制的 變化研究

李 容 弼

(서울대학교 師範大 教授)

<目 次>	
머리말	3. 轉移文化的 強調 : 「이데올로기」와 發展間的 葛藤
I. 北韓體制的 特徵	4. 物質的 誘因의 強調
1. 權威主義的 支配樣式	5. 權力繼承危機 可能性
2. 全體主義的 「엘리트」構造	V. 後期動員 段階
II. 北韓體制的 繼起的 變化의 「모델」	1. 實用主義路線의 全面的 追求
III. 動員段階	2. 抑壓水準의 大幅的 低下
1. 抑壓水準의 極大化	3. 官僚制의 硬直化
2. 轉移文化的 提示	4. 寡頭制의 化石化
3. 物質的 誘因의 缺如	5. 體系內的 部分變化와 限界
IV. 過渡期 段階	맺는말
1. 抑壓水準의 相對的 低下	
2. 實用主義의 漸進的 追求	

## 머 리 말

北韓政治體制는 帳幕 뒤에 가려져 있으므로 研究하기 매우 어려운 特異한 對象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政治體制가 指向하는 이데올로기의 路線과 이에 隨伴된 變化는 體制內的 및 外的 要因들에 의해서 影響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소련, 中共, 그리고 東歐의 여러 共產主義國家들의 變化過程의 比較脈絡에서 分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共產主義政治體制的 比較를 위한 틀이 아직도 體系的으로 定立되어 있지 않은 이 마당에서 研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共產主義國家들의 變化過程을 制限된 範圍內에서 最大限으로 比較하도록 努力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이 主題를 다루기 위해서 加급적 構造機能主義的, 比較政治的 및 이데올로기의 接近法을 活用하고자 試圖한다는 것을 附言해둔다.

## I. 北韓體制的 特徵

### 1. 權威主義的 支配樣式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를 分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를 展望하기 위해서는 北韓政治體制的 特徵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첫째로 北韓政治體制는 自生的 共產主義革命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련軍의 進駐下에 強制力에 의해서 樹立되었다. 이는 東歐의 一部 國家들에서와 같이 外部勢力에 의한 突發的 革命政權의 輸入 結果라고 하겠다. 그래서 北韓體制는 組織과 政策面에서 소련을 거의 模倣한 것이라고 하겠다. 페이지 (Glenn D. Paige)의 表現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주어진 엘리트의 獨自的 經驗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합당한 準據라고 생각되는 것의 經驗을 더 具體的으로 택하게 된다.”<sup>(1)</sup>

두번째는 北韓의 政治文化의 特徵이라고 하겠다. 다른 모든 共產主義體制들과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公式的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으며 金日成이 自身の 絕對權力을 構築하고 또 이를 永續化시키기 위해서 所謂 主體思想이라는 것을 定立했으나 이는 獨自的 思想體系라고 하기 보다도 中·소의 理念紛爭과 對內的 權力鬭爭의 便誼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그레이 (Jack Gray)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儒敎的 要素를 關聯지우면서 中國과 隣接하고 있는 北韓과 베트남과의 比較研究可能性을 提示하였다. 그는 中國에 있어서 政治文化에 대한 儒敎的 體系의 含畜은 政府의 役割과 市民들의 役割과 관련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sup>(2)</sup> 人間性에 대한 儒敎的 觀點에 따른다면 政府는 먼저 道德的 勢力이며 또한 道德的 絕對性의 最高表象이라고 한다. 政治的 權威는 道德的으로 正當化되고 政府의 道德的 正當性은 언제나 全體主義的 含畜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政治文化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인 이데올로기와 儒敎的 傳統에 바탕을

(1) Glenn D. Paige, "North Korea and Emulation of Russian and Chinese Behavior," in A. Doak Barnett,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1963), pp. 228-262.

(2) Jack Gray, "China: Communism and Confucianism," in Archie Brown & Jack Gray, eds., *Political Culture &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 Meier, 1979), p. 197.

두고 있는 全體主義的 및 權威主義的 要素들이 混融되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絶對的 權力構造의 特徵이라고 하겠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1948년에 政權을 掌握한 以後에 그의 捏造된 歷史와 神話에 依據해서, 그리고 수많은 政敵을 肅清함으로써 唯一의 權力體系를 確立하였다. 金日成의 唯一體系는 스탈린을 그대로 模倣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小스탈린主義」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였다. 이 점에서 北韓政治體系는 全體主義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고 規定지을 수 있다. 金日成은 다른 共產主義國家들에서와 같이 一黨에 의한 權力體系, 그리고 거기에 그의 族閥集團의 要職 獨占 등으로 말미암아 前例없는 權威主義的 支配樣式과 全體主義的 組織樣式을 配合시키게 되었다.

## 2. 全體主義的 「엘리트」構造

北韓體制가 어떠한 方向에서 繼起的 變化를 表出시키게 될 것인가를 보다 正確하게 分析하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體制의 全體主義的 「엘리트」構造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北韓體制가 全體主義的 極端的 變型이라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지만 이와 같은 極端的 變型的 性質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北韓社會의 特徵을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北韓이 大衆社會의 條件들을 全部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部分的 特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全體主義國家로서의 北韓社會에서 全住民은 大衆化, 즉 매우 斷片化되고 또 無力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支配的 「엘리트」가 政治的 目的을 위해서 全住民을 組織化하고 또 社會集團들을 活用할 수 있다. 그러나 自由主義的 大衆社會에서 「엘리트」가 손쉽게 非「엘리트」에게 接近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全體主義社會에서는 그 접근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全體主義社會에서는 國家와 社會가 融合되었으므로 個人은 고립상태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全體主義的 獨裁政治는 全體的 支配를 수반하기 때문에 法律이나 法規 또는 政治機能 들의 限界 등에 制約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全體主義的 獨裁政治는 國家와 社會間의 差異를 消滅시켰기 때문이다. 全體主義는 一定한 活動狀態에서 大多數의 民衆을 「엘리트」에 의해서 統制해야 할 必

要性이 있을 때만이 制約된다. (3)

큰하우저의 理論에서 重要한 要素들은 政治體에 의해서 行使되는 社會에 대한 廣範圍한 統制, 大衆에 의한 參與의 缺如 또는 法律이나 習俗에 의한 全體主義의 獨裁에서의 拘束의 缺如라고 하겠다.

두번째로 重要한 것은 集團構造라고 하겠다. 勞動組合, 職業集團, 그리고 靑少年 集團들과 같은 中間集團들이 存在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黨과 政府의 前衛機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全體主義的 및 大衆社會의 特徵들에 비추어서 北韓社會를 分析한다면 우리에게 北韓體制에 있어서의 全體主義的 「엘리트」의 位置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北韓社會는 勞動黨의 支配的 「엘리트」와 無力한 大衆으로 成立되어 있다. 어떤 集團의 形成은 그것이 어떠한 性質의 것이 되든간에 黨의 主導權에 대해서 해로운 것으로 斷定된다. 莫 강한 權力, 높은 社會의 威信, 生産手段의 統制力등을 지닌 支配的 「엘리트」는 集團이 없이 散在된 大衆을 搾取하고 있다. 肅清과 逮捕에 의한 價値剝奪, 그리고 個別的 昇進과 成就에 의한 價値賦與는 流動狀態에 있는 北韓社會와 그 안에 있는 社會集團들의 結集을 防止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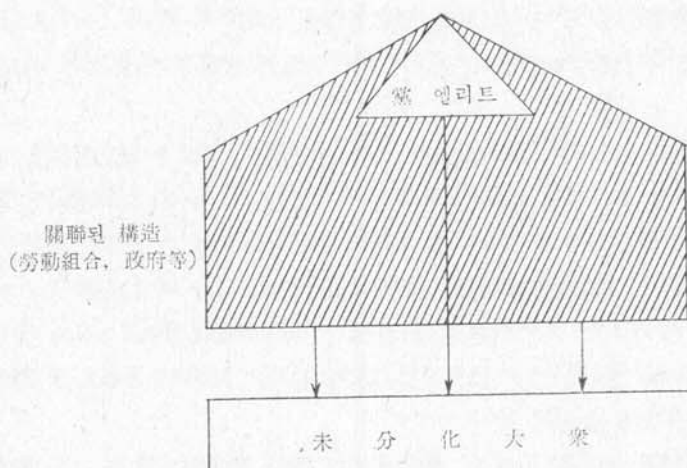
아롱(Raymond Aron)과 같은 全體主義論의 主張者들은 黨「엘리트」가 中間組織들을 통해서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事實을 勘案해서 全體主義모델을 수정하여 이러한 中間組織들을 包含시키고 있다. 支配的 「엘리트」는 레인(David Lane)이 提示한 다음 〈圖表 1〉의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直接的으로 全住民에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間接적으로 完全하게 침투된 다른 構造들을 통해서 影響을 미치고 있다. (4)

北韓體制에 있어서 黨을 樞軸으로 한 支配的 「엘리트」는 大衆으로부터 社會的으로 移動을 바라고 있는 成員들을 엄격하게 制限된 範圍內에서 充員한다. 이와 같은 制限된 範圍안에서의 上向的 移動은 그러한 成員들에 대해서 逃避口와 積極的 活動의 통로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全體主義

(3)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Y.: The Free Press, 1959), p. 13.

(4) David Lane, *Politics and Society in USSR* (London: Martin Robertson, 1978), p. 193.

〈圖表 1〉全體主義「엘리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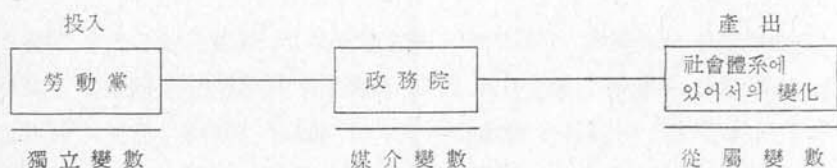


體制에 있어서의 移動은 社會에 있어서 流動狀態를 유지케 하고 同時에 結社의 形成을 阻止하는 機能을 遂行하게 하여, 또한 住民의 「엘리트」에 대한 영향이 排除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北韓의 硬直化된 全體主義의 「엘리트」의 特徵은 앞으로 豫想되는 北韓體制的 繼起的 變化에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假定된다.

## II. 北韓體制的 繼起的 變化의 모델

北韓政治體制가 勞動黨에 의한 全體主義의 支配樣式에 依據하고 있기 때문에 黨의 北韓社會 및 體制變化에 대한 影響은 매우 重要하다. 애펀(David E. Apter)에 의하면 이러한 北韓體制的 경우 勞動黨은 獨立變數, 政務院은 媒介變數, 社會體系는 從屬變數가 된다. 다음의 〈圖表 2〉<sup>(5)</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勞動黨은 政務院의 役割을 전혀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圖表 2〉 勞動黨과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變化와의 關係



(5) David E. Apter, *Political Change* (London: Frank Cass, 1973), p. 95.

도北韓體制의 重要한 政策樹立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所謂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모든 變化方向을 決定하게 된다. 따라서 政務院의 役割은 行政的 및 技術的 次元에서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

北韓體制는 1945年 解放以後에 소련 占領軍에 의해서 樹立되었으므로 그 體制에 대한 全住民의 正當性 意識은 매우 낮으며 또 그 支配樣式이 全적으로 物理的 強制力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全住民의 自由가 完全히 束縛되어 왔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初期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後期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革命神話捏造, 族閥 및 個人偶像化強化, 그리고 金日成主體思想 등을 全住民에게 注入시킴으로써 그들의 原初的 忠誠心を 誘導하려고 온갖 努力을 企圖해 왔다.

北韓體制의 35年間に 걸친 變化와 앞으로의 變化可能性을 (1) 動員段階 (2) 過度期段階 (3) 後期動員段階의 繼起的 變化的 側面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위에서 提示된 變化的 모델에 의거해서 北韓體制의 繼起的 變化를 分析한다면 獨立變數로서의 勞動黨이 動員段階에서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目標를 指向해서 從屬變數로서의 社會體系의 變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게 되거니와 過度期段階에서는 動員段階에서 成就된 變化에 의거해서 政策方向의 部分的 修正을 加하게 되며 동시에 媒介變數로서의 政務院의 役割이 漸進적으로 부가된다. 後期動員段階에 이르게 되면 北韓體制는 과도기단계에서의 變化에 의거해서 影響을 받게 된다. 특히 黨의 統制力이 相對적으로 감소되고 政務院의 役割은 相對적으로 增加되지만 黨의 優位性은 如前히 지속된다.

### III. 動員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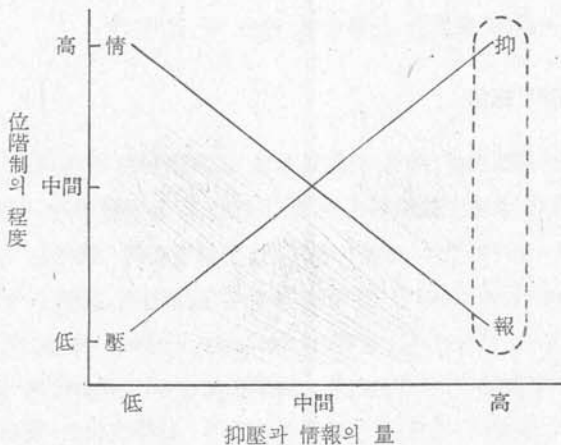
北韓體制는 소련軍의 占領 아래서 樹立되었고 그 權力은 金日成을 頂點으로 하고 있는 勞動黨에 集中되어 있다. 勞動黨은 北韓體制의 基盤을 공고히 하기 위한 努力의 一部로서 政治的 테러, 즉 物理的 抑壓을 行使하게 되었다. 이러한 段階에서 物理的 抑壓力은 革命的 體制의 存續을 보증하는데 必要한 것이므로 그 第一次의 機能은 北韓體制樹立 前後의 反對勢力들을 除去

하고 나아가서는 潜在的 敵에 의한 行動을 抑制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動員段階에서 北韓體制는 소위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目標을 위해서 全住民의 生活를 完全히 희생시켜 가면서 그들을 物理的 強制力에 의해서 動員시키게 된다.

### 1. 抑壓水準의 極大化

北韓體制의 動員段階에서는 抑壓力이 最大限으로 行使되었으며 反面에 住民間에 流通되는 情報의 流通量은 最小限으로 抑制되었다. 이와 같은 極端的 動員體制는 北韓과 같이 長期間에 걸쳐서 閉鎖된 社會에서만 維持될 수 있을 뿐이다. 엠티의 모델에 의해서 다음의 <圖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體制의 動員段階를 說明하기로 한다.

<圖表 3> 動員段階에서의 抑壓과 情報量



共產主義 動員體制는 여러가지 政策에 대한 大衆의 服從을 強要하고자 抑壓力을 使用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엠티가 말하는 바와 같이 情報 및 커뮤니케이션의 問題들, 즉 體制에 대한 持續性的 危機를 產出한다는 것이다. 엠티는 相異한 政策들이 權威를 유지하고 安定을 成就하고 또한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強壓과 情報를 相異하게 결합시키면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어떤 體制에 있어서 情報과 強壓 間에는 逆函數關係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強壓의 水準이 높은 體制일수록 반대로 情報體制의 水準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情報問題가 共產主義 動員體

제에 대해서 危機를 招來시키지 않는다.

물론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의 官僚的 커뮤니케이션이 典型的 病理의 徵候들을 露出하고 있지만 그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體制는 自己修正의 機能을 「커뮤니케이션 채널」 밖에서 產出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점은 動員體制에 있어서 급속한 經濟的 發展과 社會構造의 變化, 즉 機能的 分化和 複合性的 增加로 말미암은 政治體制에 대한 豫期치 않았던 影響力의 結果라고 하겠다. 「위로부터의 革命」은 初期에 있어서 資源과 大衆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테크놀러지와 社會의 構造的 發展은 動員體制에 대해서 限界를 부과하고 있다. 大衆에 있어서 서서히 상승된 期待와 그것을 實現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要求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指導者들에 의한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鼓吹와 注入, 그리고 테러에 의한 강압만으로 體制를 維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體制의 瓦解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抑壓力에 의한 一面의 支配는 止揚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 2. 轉移文化의 提示

그러나 이러한 抑壓力에 의한 支配만으로 北韓體制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體制에 의해서 推進된 經濟發展은 一般的으로 政務院의 自律性을 증가시켰고 또한 숙련된 勞動者들의 訓練은 이데올로기의 轉移文化(transfer culture)를 위해서 채택된 政策들의 過度的 또는 意圖되지 않았던 결과로서 나타났다. 윌레스(Anthony Wallace)에 의해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떤 革命的 이데올로기를 目標文化(goal culture)와 轉移文化로 構成된 것이라고 假定해 본다.<sup>(7)</sup> 이데올로기의 目標文化는 現在와 理想的으로 對照되는 窮極的인 유토피아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目的的인 革命行動을 誘導하고 革命黨의 重要한 部分으로부터의 희생을 强要한다. 이와 같은 目標文化는 共產黨에 의한 强壓과 暴力에 대한 依支를 正當化하는 데 使用된다. 한편 이데올로기의 轉移文化는 政策形成을

(6) David E. Apter, *Choice and the Politics of Alloc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 143.

(7)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0), pp. 6-18.



指導하는 規範을 提供한다. 轉移文化는 革命的 指導者들이 目標文化를 指向해서 채택해야만 하는 스텝들을 具體的으로 規定한다.

革命後 얼마동안 共產主義的 革命的 指導層은 社會로부터 새로운 均衡을 確立하도록하는 漸增하는 壓力에 直面하게 된다. 또한 共產黨이 執權하기 以前에 關聯했던 非 마르크스主義的 社會運動의 主要目標들도 確認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이 가장 憎惡하는 社會的 集團들이나 條件들을 革命的 暴力에 의해서 除去하도록 實行하게 된다. 그들이 이와 같은 課業을 遂行하게 되는 原因은 반드시 反革命的인 것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革命運動의 慣性을 反映한 것이다. 共產主義革命指導者들은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非마르크스主義的 社會問題들을 除去하기 위한 統一戰線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上昇하고 있는 革命的 慣性에 直面해서 革命的 指導層은 어떤 選擇을 내려야만 한다. 그들은 體制의 重要的 位置들을 占有하고 있으면서도 이데올로기의 容납될 수 없는 部分的 均衡을 묵인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社會全體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의 明白히 規定된 目標들을 指向해서 움직이도록 조종하기도 한다. 大部分의 共產黨은 後者의 코스를 特징적으로 선택한다.

北韓에서도 體制가 安定되면서부터 소위 社會主義國家建設이라는 目標文化를 定立하고 이에 到達하기 위한 轉移文化, 즉 소위 金日成 唯一思想, 金日成 革命思想, 主體思想 및 3大革命(思想, 技術, 文化)을 提示함으로써 北韓의 全住民을 思想的으로 劃一化시키려고 기도하여 왔다.

北韓體制에서의 動員은 思想教化強化의 一環으로 推進된 것으로서 스탈린의 스타타노프運動이나 中共의 大躍進運動과 유사한 것이었다. 1961年 千里馬運動은 發展된 社會主義國家를 目標로한 7年計劃과 때를 같이하여 進展되었다.

그 후 北韓에서는 人的 資源의 총동원, 戰時에 準한 社會編制化, 위로부터의 革命的 感激과 熱狂의 雰圍氣 造成, 不平不滿者들에 대한 가차없는 「階級鬭爭」 및 실재없는 「學習」 등이 强要되었다. 金日成은 이 運動을 「社會主義 建設에서 黨의 總路線」<sup>(8)</sup>으로 規定했으며 또한 「黨의 郡衆路線의 가장

(8) 『김일성 저작선집』4 (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부, 1968), p. 229.

나는 具現」<sup>(9)</sup>이라고 極口 讚揚했다. 「政治事業을 앞세운다」는 말이 群衆路線과 關聯하여 力說된 것이다. 千里馬運動은 社會主義의 愛國主義, 南朝鮮解放과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와도 結付되었다. 千里馬運動은 生産增大가 最大의 目標였으나 이와 함께 그 根底에는 社會主義의 人間을 창조하려는 의도도 併存하고 있었다.<sup>(10)</sup>

千里馬運動은 經濟文化建設에서의 集團的 革新과 勤勞者들을 教養·改造하는 事業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킨 大衆의 運動<sup>(11)</sup>이 되었고 個人的 次元에서는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를 一掃하고 黨과 指導者에 忠誠하여 모든 情熱과 知慧와 創造力을 「人民」——보다 定確하게 表現한다면 國家와 黨——에 쏟는 人間을 만들어 내는 데 강조점을 둔 것이다.

한편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遂行하고 人民의 生活水準 向上을 公約한 가운데 始作된 7個年計劃도 1965~1966年으로 접어들면서 蹉跌을 빚게 되자, 「技術神秘主義」 등이 비난되었고 動員은 더욱 強化되었다.<sup>(12)</sup>

그 후 보다 體系的 次元에서 展開된 思想, 技術, 文化革命등의 3大革命은 千里馬運動의 延長이라고 하겠다. 3大革命은 크게 보아 技術과 黨性, 즉 專과 紅을 調和시키려는 이데올로기運動이라고 하겠다.

金日成은 1967년 12월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1次會議에서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의 強化」 및 「技術革命의 實現」을 10大政綱의 하나로 宣言했으며 이는 1970年 5次 黨大會에서 基本路線으로 確定되었다. 이어서 1972년 12월 採擇된 社會主義憲法은 이러한 3大革命을 正式으로 條文에 包含시켰으며 1973年 9月 勞動黨 第5期 第7次 全員會議에서 3大革命의 성과가 論議된 것을 契機로 「大革命」이라는 말이 새로 添加되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1973年 2月 3大革命小組를 結成, 地方黨員들의 남은 思想的 殘滓를 除去하고 黨의 要求를 充實히 받들어 經濟建設을 促進시키는 데 寄與하도록 農村과 工場 等地로 파견했다. 이들 小組는 20~30명 내지 50명의 젊은 知識層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그 規模와 活動은 前例없는 것이었다. 千里馬運動이 始作된 것이 7個年計劃期間(1961~67)이었다면 3大革命運動은 그 뒤의 7個年計劃(1971~76)

(9) 上揭書, p. 228.

(10)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p. 1221.

(11) 『김일성 저작선집』 4, pp. 228-229.

(12) Scalapino and Lee, 前揭書, pp. 1260-1261.

과 더불어 本格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해서 3大革命은 工業化的 促進과 思想教化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社會文化費」 지출이 北韓豫算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思想革命이 얼마나 重視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3)

### 3. 物質的 誘因의 缺如

北韓體制는 1960年代와 1970年代에 걸쳐서 對內的으로 金日成의 唯一的 絶對權力體系를 確立하고 同時에 國防建設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과 이를 위한 全住民의 動員強行으로 말미암아 全住民의 生活은 極度로 貧困한 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北韓의 住民은 소위 強制된 革命的 熱意마저 喪失하였고 동시에 生産性이 極度로 낮아지게 되어 金日成은 人民生活의 向上問題를 提起하였다. 즉,

전면적 기술혁신과 생산의 거대한 양양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최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

7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2.7배로 장성하여 1967년에 가서는 그 규모가 전쟁 전 수준을 9배로 증가할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장래 발전과 주민들의 당면한 수요의 충족, 사회전체의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옹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축적과 소비를 조절하여 금후에도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키면서 계속 국민소득의 많은 몫이 인민 소비에 충당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비율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장성시키는 동시에 통털어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칙을 앞으로도 정확히 관찰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金日成은 그 동안에 北韓에서 社會主義建設이 相當히 進展된 것같이 主張하면서도 武力南侵의 機會에 對備해서 軍事力 培養에 모든 努力을 集中하고 있기 때문에 人民生活의 均衡的 發展이라는 名分 아래서 北韓住民의

(13) Joung won A. Kim, *Divided Korea: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5), p. 311.

消費生活을 最低限度로 抑制해 왔다.

이리하여 金日成이 住民生活向上策으로 提示한 「國民所得의 持續的인 增大와 勞動者, 事務員들의 生活改善」은 非生産的 投資, 즉 軍事費의 過大한 支出과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른 輕工業投資不振, 이와 併行해서 7個年 및 6個年經濟計劃의 繼續的인 失敗에 따라 극히 不振한 實態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體制는 住民의 衣食住問題 解決과 生活水準 向上을 도모하여 住民生活의 促進, 商品供給事業의 改善, 國民所得의 增大에 의한 住民生活 向上에 寄與할 것을 主要한 政策方向으로 設定하고 그의 達成을 위하여 持續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60年代와 70年代에 걸쳐 社會保障, 의료시설, 食糧需給, 衣類需給 등의 社會厚生面에서 別다른 向上이 없었고 오히려 「住民 生活의 劃一化」만을 強行하였던 것이다. 이리해서 住民들은 黨의 조직적 統制에 대한 嫌惡와 生産目標超過達成을 위한 과도한 勞力動員과 黨幹部들의 官僚主義的 橫暴, 그리고 貧困의 惡循環 등에 대한 內面的 不平不滿과 怠慢現象이 接踵되었다. 住宅問題만 하더라도 共產主義集團化政策에 의거하여 아파트 建設이 促進되었지만 이것은 物質文化生活의 次元이나 個人的 福祉向上보다도 政治的 統制와 動員의 目標과 직결되어 있다.

食糧需給面에서 보면 農業生産이 극히 不振하여 1968년부터 勞動者 事務員들에게 1日 1人當 700g을 支給해 오던 食糧을 100g減量 支給措置하였으며 이어 1972년부터는 月 4日量을 控制한 26日 만을 減量措置하여 配給하고 있을 뿐이다.<sup>(14)</sup> 이렇게 볼 때 北韓體制는 動員段階에서 住民을 위한 物質的 誘因이 전혀 缺如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動員段階에 있어서의 北韓體制는 勞動黨의 主導 아래서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目標를 지향해서 北韓社會의 變化에 注力하였다. 動員段階에서 나타난 變化의 特徵들을 抑壓水準의 極大化, 轉移文化의 提示, 그리고 物質的 誘因의 缺如 등의 全體主義的 支配類型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動員段階에서의 勞動黨의 役割이 主導的이었다는 點에서 勞動黨을 獨立變數로서 또 社會的 變化를 從屬變數라고 分析할 수 있다. 물론 北韓體制에 있어서 政務院의 役割이 전혀 無視될 수 없었으나 勞動黨優位

(14) 鄭雲鶴, “北韓의 住民生活,” 『北韓經濟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p. 443.

의 原則이 支配的이었던 動員段階에서 政務院은 社會變化的 媒介의 變數로서 作用했다고 하겠다.

#### IV. 過渡期段階

北韓體制는 動員段階에서 나타난 經濟的 破綻을 克服하기 위해서 온갖 努力을 傾注해 온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30餘年間 維持해 오던 金日成의 絕對的 權力體系를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繼承시켜야 하는 問題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北韓體制의 世襲的 權力體系와 연관된 特殊한 狀況으로 말미암아 北韓體制는 소련이나 東歐의 共產主義國家들의 境遇에서와 같이 쉽사리 後期動員段階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動員段階와 後期動員段階間의 過渡期段階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過渡期段階는 向後 5年 乃至 10年間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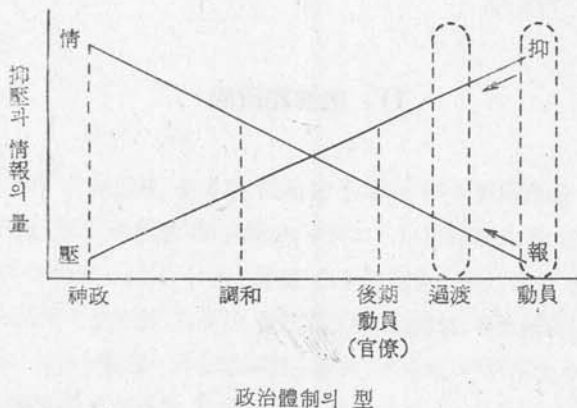
過渡期段階에의 進入은 金日成이 1977年 12월에 열렸던 第6期 1次會議에서 政務院 總理에 李鍾玉을 任命하였을 때 나타났다고 보겠다. 李鍾玉의 政務院이 出帆하게 된 것은 北韓體制가 經濟發展에 過去 어느 때 보다도 더 力點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李鍾玉의 「팀」은 多數의 技術 및 經濟專門家들로 構成되었다는 점에서 新進 「테크노크라트」의 擡頭가 浮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 抑壓水準의 相對的 低下

北韓體制는 沈滯된 經濟를 發展시키고 南韓과의 體制遂行力 競爭에서 優位를 차지하기 위해서 生産性を 提高하고 또 經濟管理의 合理化에 努力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物質的 誘因을 提示하고 同時에 抑壓의 水準을 相對的으로 낮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의 〈圖表 4〉<sup>(15)</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體制는 動員段階로부터 過渡期段階에 들어오면서 높은 抑壓의 水準을 相對的으로 低下시키고 또 物質的 誘因의 手段으로서 消費財를 多小 더 生産하게 된다는지 함으로써 住民間에 情報流通量을 相對的으로 增加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對南赤化策動을 계속해서 追求하고 또 金

(15) 〈圖表 4〉의 모델은 애퍼의 모델을 變形시켜서 作成한 것이다. Apter, *Choice and the Politics of Allocation*, p. 144.

〈圖表 4〉 過渡期 段階에서의 抑壓과 情報量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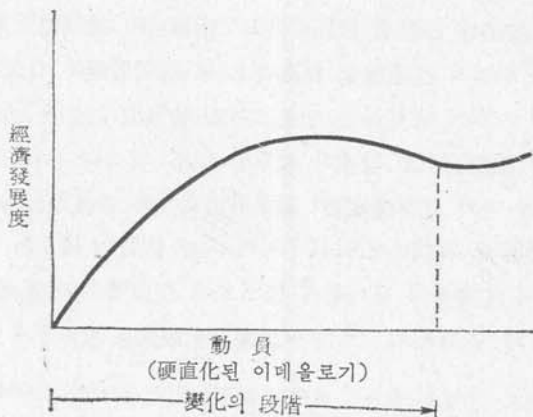
政治體制的 型

日成 및 金正日의 權力體系를 確固하게 維持하려고 企圖하는 한, 그것은 결코 抑壓體系의 全面的 緩和를 意味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動員段階에 비해서 적나라한 政治的 테러의 使用頻度가 相對的으로 減少될 것이다.

2. 實用主義의 漸進的 追求

金日成은 北韓의 落後된 經濟를 發展시키고 또 日常生活에 必要한 消費財 生産을 增加시키기 위해서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물론 過去 30여년간 딜고 오던 硬直化된 이데올로기路線을 갑자기 轉換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圖表 5〉 動員段階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經濟發展과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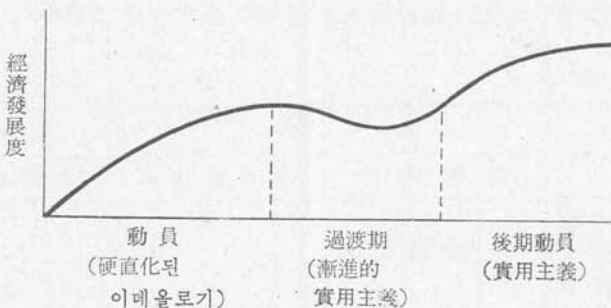
도 實用主義路線을 漸進的으로 追求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더 폭을 넓힐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징후는 科學技術教育的 強化라든지 生産性 向上을 위한 여러 가지 措置를 통해서 나타나기 始作한 것이다. 앞면의 〈圖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金日成이 계속해서 硬直化된 이데올로기路線을 追求하게 된다면 經濟發展은 전혀 期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圖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硬直化된 이데올로기 路線보다도 實用主義路線을 採擇하게 된다면 經濟發展에서 어느 程度 成果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唯一的 絕對權力體系를 維持하기 위해서 30여년간 構築해 왔던 硬直化된 이데올로기路線을 갑자기 바꾸어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은 이데올로기를 통한 政治的 投入活動의 最大限 效率性(maximum effectiveness of political input activities)과 最大限의 生産性 증의 그 어느 것을 明白하게 選擇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兩者擇一 보다도 兩者間의 적절한 過渡段階에서 漸進的 變化的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假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金日成은 硬直化된 이데올로기나 또는 實用主義路線 中的 擇一이 아니라 애매한 過渡段階를 큰 變化없이 그러면서도 現在의 經濟危機를 순조롭게 克服하기 위해서 漸次的으로 部分的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假定이 正確한 것이라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定한 過渡段階(部分的 實用主義路線)를 거쳐서 80年代末 즈음에는 全面的 實用主義段階로 轉移될 것이라고 豫測된다.

北韓에서 實用主義路線을 明白하게 追求하지는 않았어도 實用主義路線에

〈圖表 6〉 過渡期段階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經濟發展과의 關係



接近할 수 있는 가능성을含蓄적으로提示한 징후는 나타났다. 金日成은 1977년 10月 소위『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에서, 革命의 계속과 아울러 共產主義의 思想的 要塞과 物質的 要塞을 占領하기 위한 鬪爭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從來와 같이 思想革命이나 勞動階級性을 강조하면서도 同時에 科學知識의 所有가 人間의 全面的 發展의 重要한 條件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表 1〉

機能的 重要性的 度	職業專門性的 度	
	高	低
高	行 政 官 僚	黨 黨 政治 僚
低	管 理 者	黨 黨 政治 員 꾼

北韓 共產主義政治體制가 앞의 〈圖表 4〉에서의 같이 過渡段階에 접어들면서 專門知識所有者, 科學者 및 社會科學者들을 包含한 「테크노크라트」가 大學 登用됨에 따라서 위의 〈表 1〉에서의 같이 黨僚(革命世代와 이데올로기 專門家)와 黨의 일선 政治일꾼의 重要性이 相對的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行政官僚와 管理者層의 地位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1977年 末 李鍾玉의 總理任命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過渡段階에서는 黨僚와 行政官僚間에는 각 水準에서 役割葛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過渡段階 以前, 즉 動員段階에서는 近代化 또는 工業化의 程度에 따라서 두개의 職業專門 類型이 나타났다. 그 하나는 高位行政官僚와 管理者層이며 그 둘째는 高位黨僚와 黨政治일꾼이다. 現在와 같은 動員段階에 있는 北韓體制에는 다음의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位黨僚가 이데올로기 專門家이며, 黨政治일꾼이 妥協主義者가 되는 傾向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

〈表 2〉

規 範	機 能		
	目 標 提 示	制 度 的 結 束	集 團 的 管 理
理 論 家 이데올로기 專門家 實 用 主 義 者 妥 協 主 義 者	×	高 位 黨 僚	×
		×	黨 政 治 一 꾼 管 理 者



향이 점차 理論家와 더불어 實用主義的 전문가집단을 자극하게 된다. 이 段階에서는 아직도 行政官僚가 理論家라든지 또는 이데올로기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北韓社會가 過渡段階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位行政官僚는 이론가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전문직업의 役割을 組織化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이 進行됨에 따라서 卑俗한 이데올로기, 예컨대 金日成 個人偶像化, 革命思想 또는 主體思想 등이 점차 퇴색되어 가며 동시에 행정관료의 活動은 새로운 機能의 重要性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lt;表 3&gt;

規 範	機		能	
	目 標 提 示	制 度 的 結 束	集 團 的 管 理	
理 論 家 이데올로기 專門家 實 用 主 義 者 妥 協 主 義 者	×	高位行政官僚	×	高位黨僚 管 理 者
			×	黨政治일꾼

革命神話와 偶像化造作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機能들과 構造의 복잡화는 金日成의 偶像화된 似而非「카리스마」의 리더십을 침식시키게 될 것이다. 思想革命, 技術革命 및 文化革命을 아무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관료화에 수반된 硬化症的 징후와 모든 측면에서의 非能率과 非生産性を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도 北韓體制가 다만 強制力에 의해서 유지하려고 기도한다면 社會全體가 退嬰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金日成이 가까운 장래에 硬直화된 이데올로기 추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中共에서와 같이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하게 된다면, 外部世界로부터의 孤立을 止揚하고 現實的 變化에 適應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決定組織 및 情報에 대한 制度的 獨占의 面에서 全體主義的 權力의 行使가 계속해서 要求되고 있다. 이리하여 北韓體制는 發展을 위한 獨裁政治의 極端的(全體主義的) 形態를 계속해서 維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權力의 強化와 生産力의 發展이라는 퇴벤탈(Richard Löwenthal)의 規現과 같이 2元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딜레마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16)</sup>

(16) Richard Lö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p. 55.

### 3. 轉移文化의 強調 : 「이데올로기」와 發展間의 葛藤

北韓體制는 그 自體의 存續을 위해서 對內的으로 權力의 強化와 生産力의 發展이라는 課業에 最優先을 두어 왔으며 또 계속해서 努力할 것이다.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특히 소위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해서 強壓的으로 住民을 動員하고 있고 勞動黨 政策에 의한 體系에서 그들은 社會主義建設 또는 더 막연하게 階級없는 社會建設을 위한 目標文化를 提示하면서 金日成의 權力 또는 金正日에의 繼承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轉移文化도 계속해서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日成은 北韓社會가 社會主義體制를 수립한 지 30여년이 경과한 후 일지라도 아직도 過渡期에 놓여 있다는 것을 力說함으로써 北韓住民의 無條件的 忠誠과 服從을 強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過渡期段階에 알맞는 轉移文化를 提示함으로써 그의 唯一體系, 그리고 金正日에의 繼承體系構築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러한 底意에 依據해서 金日成은 北韓社會가 共產社會로 移行하기 위해서 그의 낮은 段階로서의 過渡期를 거쳐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過渡期는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을 수립한 다음 政治, 經濟, 思想, 文化, 道德 등 社會생활의 모든 分野에서 資本主義를 打勝하고 社會主義의 完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社會經濟的 變革의 시기로서 社會主義社會로 넘어가는 歷史的 路程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sup>(17)</sup> 라고 主張하고 있다.

특히 金日成은 過渡期의 必要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사회주의까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곧 과도기가 끝난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르크스·레닌主義 창시자들이 말한데 근거해서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실지투쟁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본가계급을 때려 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을 사회주의 사회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한 적

(17) 『金日成主義原理』(統一革命黨中央委員會 宣傳部, 1972), pp. 99-100.

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는 어느 때에 가서 실현될 것인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과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들어 가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해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수준에까지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18)

특히 金日成이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힘있게 展開해 온 結果로서 社會主義制度를 公高하게 發展시켰으며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앞당기기 위한 歷史的 課業을 貫徹하고자 努力해 왔다고 強調하면서 “은 社會를 主體 思想化하자”고 宣言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혁명의 총직무입니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金日成은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가 社會主義, 共產主義經濟建設에서 一貫하게 견지하여야 할 戰略的 路線이며 또 人民經濟를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하기 위한 路線이 社會主義, 共產主義 物質技術土臺建設의 性格과 目標를 規定하고 그 實現方途를 밝혀 준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執權者들의 利益은 유토피아 즉, 目標文化와 兩立될 수 없으며 時間이 경과됨에 따라서 兩者間의 갈등은 점차 增幅될 것이다. 革命世代가 權力의 核에서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유토피아의 定向을 가진 革命的 精神의 黨「엘리트」와 合理的 經濟發展의 分野에서 影響을 미치려는 새로운

(18) 上揭書, pp. 103-104.

(19)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테크노크라트」의 「엘리트」간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유토피아」에 대한 強調는 黨員들의 눈에는 執權者들의 리더십이 正黨化되고 體系의 團合을 構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토피아의 目標은 發展過程에서 發生되는 獨立의 社會勢力들의 잠재적 中心들을 分쇄하는 데에 正當化의 手段으로서 利用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및 物質的 誘因과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抑壓的 手段의 使用에 대한 선택은 發展의 상이한 段階에서 다양하게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 갈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北韓社會가 점차 產業化에의 과정을 추구할수록 「테크노크라트」層과 經營 및 管理者層에 대한 보수가 증액되어 不平等한 配分形態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共產主義의 長期的 平等主義의 理想과 生産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必要性向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이 벌써 오래 전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소위 「共產主義의 人間」, 「革命的 人間」 또는 「主體思想에 의거한 共產主義의 人間化」 등을 力說해 왔던 바는 周知의 事實이거나 그의 唯一的 支配와 金正日에의 繼承體系에 알맞는 人間型의 구조를 위해서 위와 같은 目標과 連結된 抽象的 口號를 계속해서 全住民에게 强要하게 될 것이다.

#### 4. 物質的 誘因의 強調

金日成은 지난 30여년간 北韓住民을 강압과, 實現될 수도 없는 막연한 目標文化, 그리고 그들의 實生活과 아무런 直接的 關聯도 없는 轉移文化의 提示만으로 動員시킨다든지 또 生産力을 增加시키기에는 限界가 가로 놓여 있음을 明白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金日成 自身은 이미 수없이 北韓住民의 生活을 向上시키겠다고 公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實現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는 金日成이 제 6차 黨大會에서 거듭 北韓 住民의 生活의 向上 問題를 擧論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1980년대 社會주의 經濟建設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社會주의 社會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人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社會주의 經濟建設에서 새

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20)

계속해서 金日成은 1980年代에 社會主義建設의 展望課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 加工工業部門들의 生産能力을 增加시켜야 한다든지 또는 人民生活을 신속히 높이기 위해서 輕工業發展에 力點을 두어 人民消費生産에서 一大轉變을 가져와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새로운 現代的 輕工業工場들을 많이 건설함으로써 日用品과 食料品生産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하고 그 生産品의 종류를 증가시키고 또 그 質도 先進國家들의 水準으로 向上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金日成이 住民生活의 向上을 이같이 強調하게 된 것은 강압과 동원에 의해서 北韓體制를 유지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落後된 經濟를 發展시키고 또 金正日의 權力繼承을 構築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動員段階에 비해서 消費財를 多少 더 生産한다든지 또는 其他物質的 誘因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거나 住民의 生活이 얼마만큼 向上될 것인지 아직도 未知數라고 하겠다.

##### 5. 權力繼承危機 可能性

絶對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金日成은 그의 族閥政治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金正日의 세력 구축에 全力을 경주해 왔거니와 지난 第6次 黨大會를 契機로 해서 金正日是 名實共히 權力繼承者로 浮上되었다. 이와 같은 北韓體制에서의 金日成 및 金正日의 世습적 權力繼承 作業의 準備段階은 이미 1975년 10월 10일에 열렸던 제30차 勞動黨 창건 기념대회에서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측통에 의하면 金日成이 北韓共產主義體制內에서 지난 몇년간 계획적으로 또 비밀리에 金正日로 하여금 그의 權力을 장차 순탄한 過程을 거쳐서 계승하도록 企圖해 왔다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도 前例가 없는 權力의 世습적 계승이란 아무리 오랫동안 絶對權力을 장악했던 金日成에게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金正日의 후계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궁색하게 正當化하고 있다. 즉,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20) 『로동신문』(1980년 10월 11일자)

후계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後繼者 問題는 北韓에 있어서 共產主義政權과도 관련된 根本問題라고 내세우고 있다. 金正日의 후계에 관한 그들의 근거는 소위 共產主義革命的 持續性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必要性에 있는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무엇보다도 金日成 個人에 대한 절대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소위 「首領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후계자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위 革命事業은 한 代에서 끝날 수 없으며, 代를 이어 계속되고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歷史的 使命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소련에 있어서 「레닌」과 「스탈린」 死後에 일어났던 계승을 위한 鬭爭歷史에 비추어 보아 金日成生存中 有故時나 死後에는 비슷한 유형의 權力鬭爭이 일어날 것이라는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共產主義體制 내에 있어서 權力繼承은 비밀리에 進行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樣相을 짐작할 수 없어도 恐怖政治를 자행했던 絕對權力者의 死後에는 언제나 繼承危機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의 경우에 분명한 것은 그의 似而非「카리스마」的 리더십을 순조롭게 그의 아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순수한 「카리스마」라 하더라도 그것은 理論上 轉移될 수 있다고 가정되지만 사실에 있어서 「카리스마」의 세습화란 불가능한 것이다. 하물며 조작된 金日成의 似而非 「카리스마」의 세습화란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金日成 자신이 절대적 權力構造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 捏造한 그의 偶像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金正日에게 傳授될 것이라는 保證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金日成 자신에게 盲從하는 共產主義者들이 사전에 權力繼承過程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金正日에 대한 全體人民의 崇拜를 誘導하기 위해서 온갖 手段을 통해서 그것을 조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 個人에 대한 偶像화가 虛構의 일 뿐만 아니라 金正日에의 계승이 合理的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승문제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唯一體系를 永久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과 그의 아들 金正日에 대한 개인숭배를 무리하게 결부시켜서 金正日에의 權力繼承過程을 순조롭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金日成은 造

作과 強制力에 의해서 구축해 놓은 似而非「카리스마」를 객관적인 것으로 轉移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金日成과 金正日이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似而非「카리스마」의 단순한 전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거된 正當性의 유도에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어떤 政治學者가 行政幹部를 계속해서 활용하는데는 큰 이점이 있다.

金日成의 절대권력이 似而非「카리스마」에 의거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變化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가정될 수 없다. 물론 金日成은 執權한 이래 자신에게 도전해 오거나 또는 도전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肅清을 단행해서 마침내 金日成의 唯一權力體系를 완전히 構築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구축된 權力體系라 하더라도 그것이 金正日에게 계승된 다음에는 새로운 力學關係의 變化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金正日이 權力繼承후에도 不動의 權座를 유지하고자 制度的 統制權을 掌握하려고 기도할 것이 틀림없지만 權力鬭爭 過程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金日成 生存時에 주어진 그 追從者들의 忠誠心이 盲目的으로 金正日에게 그대로 轉移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金正日의 權力構造가 表面上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급변하는 國際政治의 흐름, 특히 中·蘇로부터 또는 다른 영향력의 波長 때문에 일어나는 權力構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의 결과, 또 이것이 權力構造內的 力學關係에 미치는 결과 등은 金正日에의 繼承體系에 대해서 중대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관측된다.

過渡期段階에서 나타나게 될 變化는 抑壓水準의 相對的 低下, 實用主義路線의 漸進的 追求, 轉移文化의 強調, 物質的 誘因의 強調, 그리고 權力繼承 危機可能性 등의 要因들에 의해서 刺戟될 것이라고 展望된다. 특히 過渡期에 있어서의 北韓體制는 勞動黨에 의해서 指導되겠거니와 實用主義路線을 漸進的으로 追求하고 또 住民의 物質的 誘因을 提示하지 않을 수 없는 局面에 到達하게 되는 경우 經濟專門家와 其他「테크노크라트」의 登場이 불가피하게 될으로써 動員段階와 比較해서 政府의 役割도 相對的으로 增加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行政官僚의 自律性이 制限된 範圍 안에서 許容된다. 動員段階에서 追求되었던 硬直化된 「이데올로기」도 相對的으로 덜 강조될 뿐만 아니라 黨이 一方的으로 강행했던 政策들이 部分的으로 修正되어 住民에 대해서 多少 伸縮性 있는 反應策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獨立變數로서의

勞動黨의 役割은 媒介變數로서의 政務院의 役割이 相對的으로 增加됨으로 말미암아 多少 減少되지만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의 黨優位原則에는 어떠한 變化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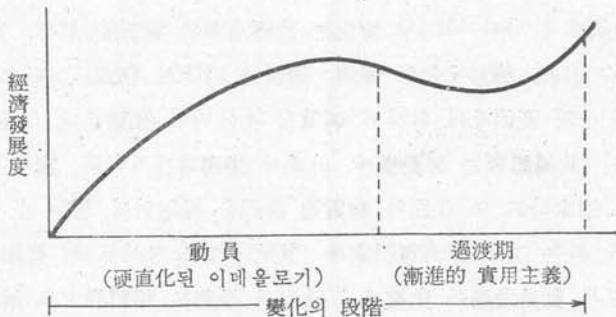
## V. 後期動員段階

北韓體制가 向後 5年 내지 10年에 걸쳐서 過渡期 段階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앞에서 展望하였으나 向後 10年 내지 15年 후에 後期動員段階가 다가올 것이라고 假定한다면 先行 共產主義國家, 즉 소련이나 東歐國家들의 發展過程에 비추어 展望할 수 밖에 없다.

### 1. 實用主義路線의 全面的 追求

北韓體制가 10年 내지 15年 후에 過渡期段階에서 後期動員段階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實用主義路線은 以前の 어느 때보다도 더 追求될 것으로 豫想된다.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目標文化를 指向해서 後期動員段階에 적합한 轉移文化를 提示하게 될 것이지만 公言된 유토피아와 現實間의 間隔이 커질수록 또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圖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過渡期段階보다 더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圖表 7> 各段階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經濟發展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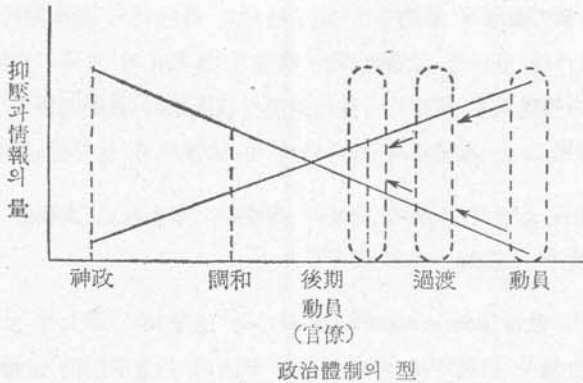
### 2. 抑壓水準의 大幅的 低下

後期動員段階에서의 抑壓水準은 動員段階와 比較해서 大幅的으로 또 過渡期段階와 比較해서는 相對的으로 低下될 것이다. 또 全住民 間에 流通되는



情報量도 마찬가지로 增加될 것이라고 豫想된다. 다음의 <圖表 8><sup>(21)</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體制가 動員段階로부터 過渡期段階를 거쳐서 後期動員段階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官僚體系의 特徵을 가지게 될 것이다.

<圖表 8> 後期動員段階에서의 抑壓과 情報量變化



### 3. 官僚制의 硬直化

北韓體制와 같은 閉鎖된 狀態에서도 全住民을 統制하고 또 同時에 動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人的 組織이 必要하게 되었고 더우기 落後된 經濟를 脫皮하고자 온갖 努力을 集中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官僚制의 병폐가 深化되기에 이르렀다.

1970年代 後半에 들어오면서부터 金日成 自身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黨일꾼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꾼들, 근로단체 일꾼들 그리고 과학기술 일꾼들과 청년 「인텔리」들을 망라한 3대 혁명소조들을 두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다"고 力說하면서 이들이 간부들의 保守主義, 經驗主義, 官僚主義를 비롯한 낡은 思想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金日成의 表現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北韓에도 官僚制弊端이 增加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北韓體制에는 앞으로 더욱 硬直化된 官僚制가 漸次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라스(Milovan Djilas)의 表現과 같이 이러한 관료층은 特典과 經濟的 選好를 享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段階의 支配를 產出하게 될 것이다.<sup>(22)</sup>

(21) <圖表 8>은 애플의 모델을 變形한 것임.

(22)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N.Y.: Prager, 1957), pp. 39-40.

그러나 分明한 것은 黨의 指導層은 一黨支配의 正當性이나 窮極의 權威에 대한 直接的인 挑戰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異質的 世界觀이나 反體系的 觀念의 傳播는 거의 許容되지 않을 것이다.

#### 4. 寡頭制의 化石化

金正日의 權力繼承이 順調롭게 完了된다고 하더라도 過渡期에서 後期動員段階로 들어가게 된다면 社會經濟的 構造의 複雜化와 이에 의한 權力構造內의 복잡한 力學關係의 變化는 先行共產主義國家의 發展過程에 비추어 볼 때 集團指導體制 또는 寡頭制가 나타나게 될 可能性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소련의 政治에 대해서 指摘한 學者들의 表現을 빌려서 說明하는 것도 매우 示唆的이라고 하겠다.

行政支配의 社會(administered society)는 位階制의 頂上에 있고 官吏들의 支配的 役割을 強調하게 된다. 어떤 學者가 行政支配의 社會, 組織的 社會, 또는 이데올로기의 體系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 소련體系는 命令支配的 社會(a command-dominated society)라고 要約될 수 있다. 이러한 體系는 恐怖없는 全體主義인데 이는 政治指導자들이 새로운 社會를 그들의 信念과 熱望에 따라서 創出시키려는 政治體制라고 불리워진다.<sup>(23)</sup>

北韓體制에 있어서는 金正日의 權力이 弱화되고 寡頭制가 나타나게 될 때 頂上의 實力者들은 動的인 政治 리더쉽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權力만을 保存하려는 일종의 黨書記의 政府가 될지도 모른다. 後期動員段階에서 提示되는 目標文化와 現實間에는 넘을 수 없는 間隔이 가로 놓이게 될 것이며 北韓體制는 沈滯 또는 化石化的 狀態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假定된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寡頭制의 化石化는 黨의 支配的 役割의 유지와 이데올로기의 內在的 獨斷性的 保存을 수반하게 된다”고 言及하고 있다.<sup>(24)</sup>

이 段階에서 黨이나 이데올로기는 社會에 대해서 革命的 精神만을 계속

(23) Jerry F. Hough,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in Leonard J. Cohen et al.,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Y.: Anchor Press, 1974).

(24) Zbigniew Brzezinski, *Between Two Ages* (N.Y.: Viking Press, 1970), p. 163.

해서 強調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黨은 社會에 대해서 重要的 刷新을 強要하지 않고서 社會에 대한 政治的 統制力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敎化와 이데올로기의 일탈에 대한 制約이 계속 維持된다. 이러한 段階에서 保守的 政策은 革命的 슬로건에 의해서 위장되며 硬直化된 官僚에 의해서 支配된다.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가 소련은 全體主義的 獨裁에서 權威主義的 獨裁 또는 寡頭制로 變化되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體制도 유사한 體制로 變化될 것이다.<sup>(25)</sup>

이렇게 볼 때 後期動員段階에서의 北韓體制는 實用主義路線의 全面的 追求, 抑壓水準의 大幅的 低下, 官僚制의 硬直化, 그리고 寡頭制의 化石化 등의 要因들에 의해서 變化될 것이라고 展望된다. 이 段階에서의 北韓體制는 勞動黨의 主導的 影響 아래서 作動될 것이지만 實用主義路線의 全面的 退求와 이에 따라 形成될 官僚 및 「테크노크라트」層의 肥大化로 말미암아 政府의 自律性이 過渡期段階에서보다 더 確立될 것이며 아울러서 傳統的 黨優位가 多少 浸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가 持續된다면 獨立變數로서의 勞動黨의 役割이 더 한층 萎縮될 것이며 媒介變數로서의 政務院의 役割은 強化될과 同時에 從屬變數로서의 社會的 變化가 오히려 體制에 대해서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部分的으로는 獨立變數로서도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 5. 體系內的 部分變化와 限界

共產主義國家에서의 變化는 주로 소련에서의 非스탈린化運動과 近代化의 影響에 의해서 刺戟되었다. 政治發展論者들에 의하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礎를 建設하려는 過程이 大衆參與의 量과 質에 있어서의 變化, 即 政治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壓力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물론 共產主義엘리트들에게 深刻한 危險인 同時에 機會가 되기도 한다. 슐츠(Donald E. Schulz)는 “이러한 流動的 狀況에서 相異한 엘리트들이 體系의 性格에 따라서 相異한 樣式으로 그러한 壓力에 對應하며 또 參與의 形態, 機能 및 效率性에 대해서 多樣하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sup>(26)</sup>고 主張하고

(25) Jerry F. Hough,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p. 452.

(26) Donald E. Schulz,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Participation in Communist Systems: A Developmental Analysis,” Donald E. Schulz & Jan S. Adams, ed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mmunist System* (New York: Perg-

있다. 一般적으로 社會經濟的 發展과 近代化란 分化, 世俗化, 多元主義 및 參與를 包含한 政治發展 및 近代化를 더욱 助長시키게 된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도 “政治的 近代化는 政治意識의 擴散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社會集團들로 하여금 政治의 領域으로 動員하게 된다”(27)고 指摘하고 있다. 적어도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의 政治發展은 社會에 있어서 이러한 集團들의 參與와 經濟的 變化를 吸收하고 또 規制하기 위해서 充分히 適應的 및 自律的 政治制度의 創出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發展된 資本主義社會에서의와 같이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도 目標을 設定하고 또 社會的 問題들에 대한 反應과 解決을 위한 手段을 택하게 만드는 過程과 制度가 必要하다.(28)

北韓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 支配的 엘리트들은 共產黨의 權力과 權威를 維持하고 國家目標을 設定하고 政策을 執行하려는 願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根源에는 마르크스主義·레닌主義 및 스탈린主義의 傳統이 맥맥히 깔려 있으며 게다가 所謂 金日成에 의한 主體思想이 덧붙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體制에서는 個人主義의인 定向의 政治秩序의 缺이 存在할 餘地조차 없다.北韓體制에서 力說되고 있는 革命을 위한 規範이나 倫理는 엘리트主義의이며 操作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態度的 表面에는 그들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理解할 수 있는 知慧와 리더십을 가진다는 假定이 있다. 따라서 近代化의 促進과 社會經濟的 發展에 의해서 多少의 大衆參與의 門이 開放된다 해도 그것은 民主主義國家에서의와 같은 自律的 參與라고 하기 보다는 動員된 參與(mobilized participation)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北韓體制的 後期動員段階에서의 參與問題를 假定해 본다면 그 解答은 自明해진다. 革命的 變化와 近代化를 위한 推進力은 社會經濟的 및 政治的 領域에서 住民들의 參與를 強制하게 된다. 이것은 部分的으로 是機能的 必要性에 연유된 이데올로기 問題라고 하겠다. 즉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參與는 手段이며 同時에 目的이 된다. 動員된 參與는 反革命勢力에 대한 自衛手段이 되기도 하며 또 住民들로 하여금 未來의 共產主義社

amon Press, 1981), p. 27.

(27)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211.

(28) Jan F. Triska,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cisions in Yugoslavia, Romania, Hungary, and Poland," in Jan F. Triska & Paul M. Cock, eds., *Political Development in Eastern Europe* (New York, 1977), p. 148.

會의 規範을 習得하고 內面化시키는 手段이 된다.

近代化와 社會經濟的 發展이 豫想된다 하더라도, 또 體系內的 部分變化가 豫想된다 하더라도 黨의 第1次的 役割에 결코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黨리더십은 情報과 抑壓變數들의 궁극적 統制를 拋棄하는 것이 아니다. 소련과 東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해도 體制自體의 變化가 있을 것이라고 할 만한 基本的 構造上的 發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黨主導權의 維持와 이에 依據한 動員의 持續으로 말미암아 浸透危機(penetration crisis)에 直面하게 되며 한편 參與的 動員은 社會經濟的 發展의 趨勢에서 參與危機(participation crisis)를 겪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體制에서의 內的 部分變化는 다른 共產主義國家들의 경우와 大同小異한 것이 될 것이라고 展望된다. 여기서 라코스카-함스톤(Teresa Rakowska-Harmstone)이 소련에서의 리더십變化可能性에 대해서 分析한 內容이 北韓體制變化에 대해서 매우 示唆的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르면 그녀는 첫째 要素는 一黨에 의한 權力의 獨占으로서, 이는 體系自體의 性格을 變化시키지 않고서는 變化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두번째 要素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인데 共產主義國家에서는 體系內的 正統性的의 이데올로기의 根源이라고 하겠다. 그 셋째는 政治的 繼承을 위한 節次가 缺如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共產主義體制가 지니고 있는 가장 深刻한 弱點이므로 前制度的 性格의 問題라고 하겠다.<sup>(29)</sup>

이러한 라코스카-함스톤의 分析에 비추어 北韓體制의 變化를 展望해 본다면 우리는 그 輪廓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北韓體制가 相當한 時間이 경과된 후에 後期動員段階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體系內的 變化에는 넘을 수 없는 限界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 맺 는 말

北韓體制는 漸次的으로 動員段階에서 過渡期段階로 移行하고 있다. 특히 1970年初부터 落後된 經濟的 建設과 住民生活의 向上을 위해서 實用主義路

(29) Teresa Rakowska-Harmstone, "Toward a Theory of Soviet Leadership Maintenance," in Paul Cocks et al., eds., *The Dynamics of Soviet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p. 51-52.

線을 追求하기 始作하였지만 그러한 路線의 追求가 金日成의 唯一體制 또는 金正日의 後繼體제의 構築에 미치게 될 潛在的 影響을 兪려하게 되므로 金正日의 主導下에 三大革命小組運動을 全國的으로 또 組織的으로 展開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體制는 硬直化된 이데올로기 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의 中間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든 言及된 바와 같이 北韓에서 社會經濟的 發展과 近代化가 緩慢하게 推進됨에 따라서 北韓社會는 다른 共產主義國家들에서와 같이 體系內的으로 變化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5年 내지 10年 후에 後期動員段階에 들어서게 된다고 假定해 본다면 金正日後繼體제의 成敗, 抑壓水準의 相對的 低下, 官僚 및 技術「테크노크라트」의 大舉登場, 官僚制의 硬直化 그리고 權力頂上에서의 寡頭制의 化石化 現象 등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變化의 趨勢 속에서 動員된 參與, 그리고 參與危機와 浸透危機의 狀況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變化의 速度와 範圍는 體系內的 要因보다도 體系外的인 要因에 의해서 決定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變化는 體制內的 部分變化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體制全體의 變化는 거의 期待될 수 없다.